

'97 한국 FDI총회

유치를 위한 첫걸음

“

국내 치의학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적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 시발점을
치협집행부는
FDI총회 개최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

싱가폴 FDI총회, 대규모 한국대표단 파견요망

제78차 FDI총회가 오는 9월 8~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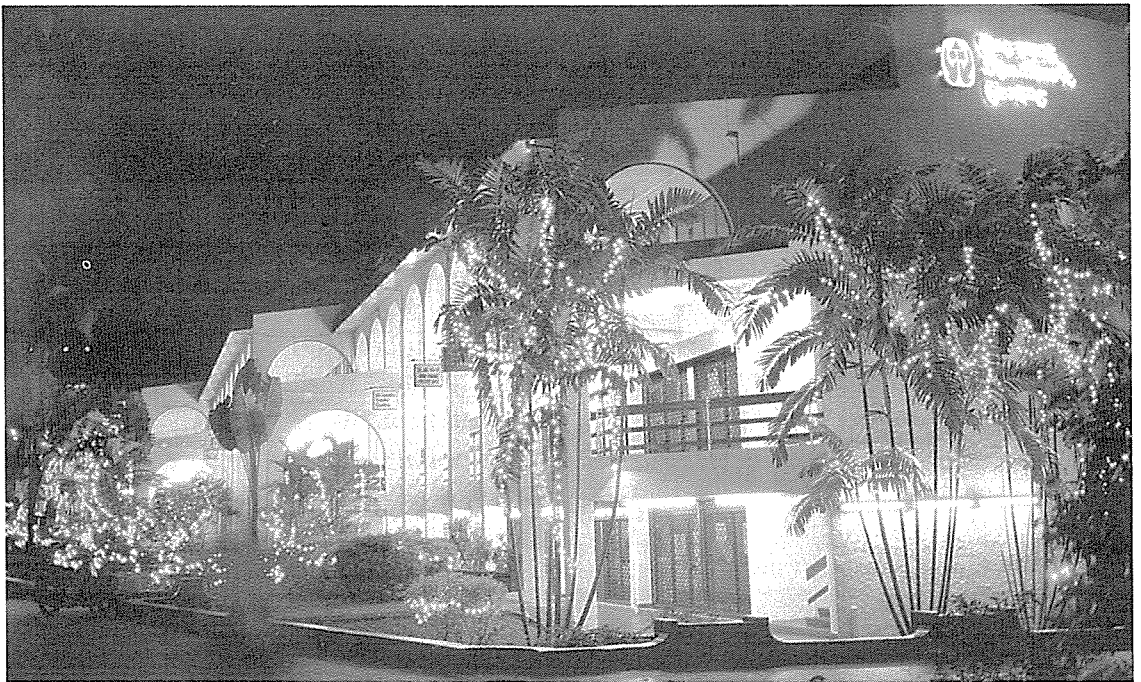
전세계 회원국 87개국에서 참가할 이번 FDI총회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어느 FDI총회보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사실 우리나라 치과계가 국제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란 그리 많지 않다.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전세계 치과인

에게 한국치과계의 저력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제14차 아태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한국치과계가 과소평가됐음을 알리게 되어 위상정립에 한몫을 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세를 밀어붙여 97년도 FDI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행부의 당면목표이다. 국제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에서는 FDI총회 유치에 심혈



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인데 우물
한 개구리처럼 국내에서만 맴돌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국내 치의학수준을 높이는 것
은 물론 한국치과계의 위상을 국
내외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
다고 본다. 그시발점을 치협집행
부는 FDI총회 개최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FDI총회개최지는 통상 7년전
총회에서 확정된다. 금년 싱가포르
총회에서는 96·97년도 FDI총회
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미 95년 홍콩총회까지는 확
정되어 있고 2천년에는 FDI발상
지인 프랑스에서 개최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96~99년도 개최지는 아직 결정
되지 않았다.

이 기간중에 아태지역에서는
단한차례 개최할 수 밖에 없어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등에서
유치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이
번 싱가포르 FDI총회에서 2백명규
모의 대표만을 파견, FDI총회유
치활동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
고 한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꾸준히 유
치활동을 벌여오던 중 지난 5월
에는 尹興烈협회장이 FDI영국본
부에서 상임이사회가 열린것을
이용, 주영 한국대사의 도움으로
만찬을 개최하여 적극적인 홍보
에 나서 좋은 결과를 얻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취약
점은 싱가포르총회에 불과 15명밖
에 참석치 않는다는 점일 것이
다. 강력한 후보지 말레이시아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참석이 아닐
수 없다.

FDI총회의 유치는 단순한 대회

유치 차원이 아니라 여러가지 긍
정적인 변화를 유발시켜 국내외
적으로 한국치과계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될것이
라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FDI총회의 유치는 집행
부만의 노력으로 이뤄지기 어렵
다. 많은 회원들이 이번 싱가폴
총회에 함께 참석하여 대회 유치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현재 싱가폴
총회 한국대표단은 수석대표에
尹興烈 협회장, 교체대표에 李起
澤국제이사다.

싱가폴 FDI총회 준비위원회 홍
보간행위원장인 영예첸박사는 지
난 5일 尹興烈협회장에게 팩시밀
리를 통한 공문을 보내 FDI총회
한국유치를 위한 세가지 조언을
전해왔다.

영박사는 이 공문에서 97년도
FDI총회 한국유치를 위해서는 첫
째 FDI싱가폴총회 전회 FDI신임
사무총장인 질렌박사를 한국에
초청, 보사부 장관을 예방토록
할 것과 둘째 FDI상임이사및 각
국 대표들을 초대, 주싱가폴한국
대사 주최로 「한국의밤」을 개최
토록 하며 셋째, 한국의 관심을
입증하고 한국회원의 강력한 의
지를 전달키 위해 대규모 한국대
표단을 파견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FDI싱가폴총회에 참
가할 한국대표단은 부부동반을
포함, 총 21명으로 밝혀졌다.

齒協국제委(위원장·李起澤)는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
키 위해 싱가포르·바탐섬을 경유
하는 4박 5일코스과 싱가포르·바
탐섬·푸켓섬을 경유하는 6박 7
일코스를 마련해 놓고 있다.

